| 현불 논단 |

한가위 보름달 '자비' 가득하길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코로나 19로 사회 구성원들 어려움
불평등 구조 심화… 공동체 손상돼

관세음보살 '자비'서원 새로 다가와
"자비는 현실의 고통에 가슴을 열고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자비심 일으키기 위해 평등심 필수
코로나 공황시대, 자비수행 필요해
자비심 영역과 대상을 확대 해보자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가 싶더니 어김없이 추석이 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윗날만 같아라. 늘 추석 때처럼 되기를 바라는 우리 조상의 애절한 소망이 담긴 옛글이다. 그런데 어이하랴. 추석 한가위 달을 보면서 〈토지〉에 나오는 박경리 작가의 글이 떠오른다.

"팔월 한가위라 하면 한산 세모시 같은 느낌이 든다. 온기가 없는 달의 아름다움이 연상되어 그렇기도 하려니와 소복단장한 청상과부의 비애가 한산 세모시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추석 잘 지내라고 하는 정치인의 현수막도 을씨년스럽게 느껴진다.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1년이 넘게 이 땅의 온 사람이 전전긍긍하며 움츠리고 살고,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공동체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

옴마니반메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서원이 새롭게 다가온다. 관세음보살의 서원은 이 땅에 '자비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니라.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붓다의 깨달음은 자비행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붓다의 전생을 설화문학으로 설정한 〈본생경〉의 주제는 바로 자비행이다. 지구별에서의 붓다 자비행의 첫 출발은 '범천의 설법요청'에 그대로 나타난다. 범천의 간곡한 설법 요청에 붓다는 자비심으로 두루 세상을 살펴보고 전법의 길에 나섰다. 자비행에서 불교가 탄생한다. 어느 서양학자가 정의한 자비의 정의를 새겨 본다.

"자비는 고통과 비애와 비통에 대한 다면적인 반응이다. 자비 속에는 친절, 공감, 관대함, 수용이 포함된다. 용기와 인내와 평정이라는 실들이 골고루 사용되어 짜인 옷감이 바로 자비이다. 무엇보다 자비는 현실의 고통에 가슴을 열고 그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열망이다."

추석에 떠오르는 한가위 달에 자비의 온기가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세간에서 말하는 '자연적인 사랑'은 유전자의 속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과 가까운 만큼 더 사랑하고 멀어지면 덜 사랑한다. 경계선 너머에 있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자비는 연민의 윤리를 넘어 우주의 우정이다. 가까운 자가 아니라 멀리 있는 자를 사랑하고 연민 없이 사랑한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평등심에서 출발한다.

달라이라마는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선 평등심을 담아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 공황시대에 자비수행의 실천이 절실하다. 자비수행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초기경전이 바로 〈자비경〉이다. 10개의 게송으로 된 자비경은 그 내용이 너무 넓고 깊고, 또한 오늘날의 덕목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놀라움과 감동을 금치 못한다. 다섯 번째 게송을 인용해 보자.

눈에 보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건
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고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자비수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비심의 방사(放射)이다. 방사는 자비심의 대상과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자비를 보편화시키는 방편이다. 한가위 보름달의 빛으로 자비가 이 땅을 따뜻하게 감싸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무관세음보살.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빠알리어를 향한 관심

요즘 빠알리어를 향한 한국 불자들의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동국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과 한국불교의 사찰에서 빠알리어 공부를 하는 모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원본을 읽고자 하는 것이 빠알리어를 접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둘째, 번역가의 능력과 해석에 좌우되는 기존 출판 번역본이 담고 있는 많은 오류가 독자의 이해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초기불교 경전을 향한 관심을 반영해 저는 그동안 강남 한국명상원에서 매주 목요일 쌍윳따니까야를 가르쳐 왔고,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하여 마하위하라에서도 온라인(비대면) 빠알리어 강좌를 시작하였습니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늦은 저녁 8시~9시(1시간씩)이며, 수강기간은 10개월입니다.

강의 교재는 스리랑카에서 유명한 빠알리어 권위자인 아상가(Asangar) 교수의 저서로, 강사인 제가 직접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 회의 링크는 매주 새롭게 만들어 매번 마하위하라 카페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빠알리어 강의를 마친 후 이어서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빠알리어 독송방이 열립니다.

독송방은 〈마하 빠리닙바나 숫따〉(열반경) 원본을 누구든지 자유롭고 편안하게 독송할 수 있도록 개설됐습니다. 빠알리어 공부방과 독송방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PC 혹은 모바일을 활용하여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전에 줌 회의 링크로 접속하신 후에 참여하시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부처님은 지배층이 사용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민중어라고 불리는 마가다어로 설법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어이며 토착 민중어인 마가다어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민중어가 바로 오늘날 빠알리어입니다. 이 빠알리어는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사용된 인도 아리안의 '민중어'인 쁘라끄릿뜨(Prakrit)어의 일종으로 부처님은 그 당시에 이 민중어로 설법하셨기 때문에 빠알리어는 부처님의 원음을 고스란히 간직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빠알리어는 1차 결집부터 3차 결집까지 이이진 부처님의 말씀이신 성전(聖典), 그리고 경장과 율장과 논장으로 구성된 삼장이 빠알리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빠알리어라는 그 말 자체가 삼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지방어로 부처님 말씀이 오염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지방어로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지방어로 전승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빠알리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전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어로 번역하여 전승했을 때 그 의미는 후대로 갈수록 변질될 것입니다. 뜻과 의미는 세계 각국어로 파악할 수 있지만 전승하는 것만큼은 부처님이 사용하던 언어 그대로, 즉 빠알리어로 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불교의 가치관이 담긴 빠알리어 단어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바로 '사두!'라는 단어이며, 이는 '훌륭하다/좋구나/착하구나/선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한 일을 수행할 때 꼭 '사두! 사두! 사두!'라고 3번 외쳐 보세요! 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3번의 외침은 선업에 동참하는 것이며 또한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선학원 이사회의 위험한 무리수

재단법인 선학원이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前이사장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참담한 일이다. 선학원 前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이미 3선 이사장으로, 임기 중 유례없을 정도로 선학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 꼽힌다. 개인적인 비위인 성범죄에도 선학원 이사장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어린이집 재수탁 심사에서까지 탈락하는 참사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청정승풍을 수호하고 정화의 산실 역할을 했던 선학원의 대외적 위상은, 성범죄자 이사장이라는 낙인으로 바닥까지 추락했다.

이사회가 법진 스님의 재선출을 시도한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태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선학원 이사회는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로부터 선학원을 잘 운영하고 이끌어야 할 책무를 위임받은 이들이다. 정관을 무시하고 밀실행정으로 분원관리규정을 입맛대로 뜯어 고치는가 하면, 이를 무기삼아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을 옭죄는 행위들은 현재의 이사회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선학원을 작금의 지경으로 내몬 前 이사장을 다시 재선출하려는 움직임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다.

"지금 이사회가 해야 할 일은 '최종진(법진) 4선 이사장 재선출' 시도가 아니라 '이사 자격 박탈'이다. 이사의 자격은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덕망이 높은 승려' 여야 하기 때문이다."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선학원이 또 한번 퇴보의 길을 걷는 계기를 만들어선 안될 것이다.

안심불교학술원을 향한 기대

안심정사가 한국불교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한다. 이번엔 교육이다. 그동안 기도를 통한 성공적인 포교의 상징으로 손꼽혀 왔다면, 이제 교육을 통해 30년간 응집된 노하우를 회향하겠다는 의미다.

논산의 작은 도량에서 신도 1세대로 시작한 안심정사는 30년이 지난 지금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국 6개 도량에서 신도 3만 세대의 규모를 갖춘 대표적인 포교도량으로 성장했다. 30년만에 일궈낸 경이로운 변화를 딛고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는 점에서 안심정사를 향한 불교계 관심이 남다르다.

안심정사가 새롭게 선보인 안심불교학술원은 기존 사찰들이 운영해 온 불교교양대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프로그램이다. 스님과 전법사, 재가자의 구분도 넘어섰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원력을 가진 누구나에게 무료로 안심정사 30년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안 스님은 코로나 이후 폐사위기에 처해 사찰 인수를 요청해 오는 스님들을 접하면서, 한국불교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함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안심불교학술원은 사찰이 살고 사찰답게 유지될 수 있는 대안, 불자들이 불교를 믿음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한국불교가 다시 살아나고 발전할 수 있 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기관인 셈이다.

"안심정사가 한국불교의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이를 체계화해서 누구든 한국불교 중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회향하고자 결단을 내렸다."

스님의 발언에 안심불교학술원의 존재 이유가 그대로 드러난다. 안심불교학술원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